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Chungnam Branch

Vol.24

2020 충남 문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달의 문화공감 2020 충남 문화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4

테마기획
풍경의 유혹
문화원 이야기
문화공감
문화원 소식

vol. 24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4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경자년 한해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여름철 유례없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당한데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는 등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청도내 문화원과 문화예술인들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3년 임기의 제14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행사를 가질 수 없어 취임식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우리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가족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15개 문화원과 문화가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도내 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당면한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낸다면 우리 충청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충남도에서 올해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10년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충남을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 아래, 문화예술관련 예산도 연차적으로 대폭 늘려 나간다는 구상을 밝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내 문화원과 문화가족들은 이 같은 충남도의 문화정책에 발맞춰 충남을 전국적인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충남의 정신문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도민들의 생활 속에 생활문화로 만들어 가는 일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내 15개 지방문화원 문화가족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내년에는 더욱 활기찬 문화 사업을 펼쳐 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 충남,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자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유 환 동

허물

권선옥(시인, 논산문화원장)

스스로 벗어내는 허물은 투명하다

독사도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으면서 몸집이 커지고

이빨 속의 독은 더 독해진다.

허물을 벗어야지, 떼어내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허물을 벗지 못한다.

허물은 차츰 두꺼워지고

마음속의 독은 깊게 쌓인다.



- 1976년 『현대시학』 추천 완료
- 시집 『감옥의 자유』 등 5권, 수필집 『아름다운 식탁』이 있음.
- 건양대 문창과 겸임교수, 충남문인협회장 역임

테마 기획 1

포스트코로나19
지역연구센터로서의
문화원 역할

강원대학교 산촌문화연구원
최명환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의
디지털 트렌드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리소스연구원
한동현
10

환실(幻實)개념으로 본
포스트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을 문화원혁명으로-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이학주
13

풍경의 유혹 2

순국 100주년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가다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16
초속 5센티미터-충남역사박물관 정지은 공주문화원 18

장암서예관 김명희 보령문화원 20

충청남도 기념물 제 115호 온양향교 건축을 만나다 김형기 온양문화원 22

이슬이 더해지는 숲을 이룬 곳, 서산 가로림(加露林)만 장은아 서산문화원 24

논산 탐정호 전현희 논산문화원 26

바다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당진 왜목마을 강대원 당진문화원 28

통쾌한 승전의 역사와 함께! 이지대첩기념지 김소연 금산문화원 30

가을여행의 결정판 백마강의 은빛물결 이미영 부여문화원 32

문화예술창작공간 '장항미곡창고' 김이슬 서천문화원 34

청양 다락골 줄무덤 성지 박성준 청양문화원 36

홍성천 벚꽃길 조남민 홍성문화원 38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장혜민 예산문화원 40

태안 청정 자연이 함께 하는 곳, 국내 유일의 바다가 보이는 고남패총박물관 장수정 태안문화원 42

문화 공감 4

맛집멋집-키조개 두루치기 하나쌈밥 식당 임성빈 보령문화원 62

내 마음의 시-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신광식 천안서북구문화원 64

내 마음의 시-어부의 아내 장미숙 온양문화원 66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열정의 실버뮤지션 '상록수밴드'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68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꽃길에서 만나요 명 진 온양문화원 70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어서와, 모시공예는 처음이지? 김이슬 서천문화원 72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전통차(茶)의 매력에 빠지다, 청양문화원 다도반 박성준 청양문화원 74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예산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 이충환 예산문화원 76

문화원 이야기 3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 1497주기 추모제례 봉행 정지은 공주문화원 44

할미들의 '한담 한담 바느질 이야기' 이지윤 온양문화원 46

강경문화재 야행 이준창 논산문화원 48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 제421주기 구봉 송익필 선생 제향(고유) 강대원 당진문화원 50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ON 슬기로운 문화생활 김소연 금산문화원 52

기벌포 문화제 김정환 서천문화원 54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혁신으로 우울감 떨치다!!! 김숙희 홍성문화원 56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윤선정 예산문화원 58

새로운 표준, 뉴노멀 트렌드는 '언택트(Untact-비대면)' 김유미 태안문화원 60

연합회 활동상황 5

문화원 연합회 활동상황 78

문화원 소식 6

천안서북구문화원 이종석 원장 문화체육부장관 수상 천안서북구문화원 80

전국적인 주목, 보령문화원 <충청수영> 발간

- 향토논문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상 수상 보령문화원 80

2020년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충남지역 오디션

- 온양문화원 '빠담 빠담 장구난타' 1위 본선 진출 온양문화원 81

제1회 서산문학상에 편세환 원장 영예 서산문화원 81

부여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수상 부여문화원 82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 홍성문화원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수상 홍성문화원 82

예산문화원 제17·18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 예산문화원 83

정지수 사무국장, 제3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태안문화원 83



No.24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4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유환동 편집위원 이종석(천안시서북구문화원), 정찬국(부여문화원), 이관우(서천문화원), 임호빈(청양문화원)

기획 조남민 편집 김상희 행정 조민영 표지사진 김현규(천안 거북놀이 재연)

발행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9호 TEL 041)635-9102~3, FAX 041)635-9104

※ 본 책자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지역연구센터로서 문화원의 역할 ”

강원대 산촌문화연구센터 연구원 **최명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등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대면(非對面) 활동이라는 의미로 ‘언택트(Untact)’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종식(終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는 전염병 발생과 전염병 소멸 이후의 대처, 비대면 활동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극복,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미래 준비 차원에서 형성된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기도 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재해 있는 문화원(文化院)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9월 「포스트 코로나,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유망기술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키워드로 제시하면, 비대면, 온라인, 아카이빙, 디지털 등이다. 곧 비대면 방식이 늘어날 것이고,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활동의 확대가 문화원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및 단체들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논의들에서 일부 아쉬운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고 있고, ‘무엇을’이라는 대상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역 문화원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확장해, 해당 지역 ‘지역연구센터’로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연구센터’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오면서 흔히 ‘지역 연구’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제도 시행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나뭇의 문화 계승, 정체성 확보,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정서 공유를 목적으로 지역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 공유는 지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 해당 지역 주민 으로서 자긍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에 거주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거주에 대한 만족감 강화, 삶의 질 향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학 연구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만 보이는 것은 현상은 아니다. 2000년에 있었던 ‘세계문화다양성선언’, 2005년 있었던 ‘세계문화다양성협약’ 등도 지역 나뭇의 문화 다양성 인정과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 연구가 2000년대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0년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무렵에 확장되었다. ‘인문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 발전 가능성 모색 등을 목적으로 지역 연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무렵 지역 문화원들도 ‘향토사연구소’를 건립하여 지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방화(世方化)’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역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연구 분야도 ‘인문사회’ 분야에 제한을 두는 경향들도 있었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해당 지역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별로 나뭇의 발전

방향과 문제 해결 방향까지도 제시한다. 곧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 연구 결과물들이 ‘효용성’과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연구한 결과물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는 지역을 연구한 연구자들에게도 공허함을 주는 부분이다.

지역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연구 결과물의 활용이 아쉬운 것은 분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연구 결과물들을 연구자 및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문화원이 이러한 공유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연구 결과물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연구센터’가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대 하고, 연구 결과물들을 홍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 연구의 활성화는 연구자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과 ‘지역 연구’ 지표에 따른 지역 연구자 상호 간의 대비 연구 등도 요구된다. 또한, 지역 연구가 해당 지역 연구에만 매몰될 경우 타 지역과의 관계성이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문화원에서는 국내·외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지역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시대에 이루어지는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비대면 활동은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을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유사한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 가치의 재발견, 재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해당 지역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지역 연구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과 지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연구가 학문적 성격으로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최소화되기에, 디지털아카이빙과 비대면 활동의 확장은 문화원이 다양한 분야 결과물을 해당 지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연구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 현재보다 그 기능에 대한 활성화가 오히려 보편화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의 디지털 트렌드”

한국외대 디지털리소스연구센터 **한 동 현**

최근 코로나19로 야기된 상황이 우리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

문화원이 지니는 ‘지역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은 기초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역 행사와 운영프로그램 기획 시에도 지역 연구 결과물들을 활용해 기획한다면, 해당 지역에 근거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물들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 활동의 소재가 될 때, 시민들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연구의 집중과 해당 지역민들과의 공유는 ‘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지역 연구’ 결과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 각급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재 및 부교재를 개발을 통한 내용 전달의 효용성도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의 한계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국 단위의, 심지어 글로벌 단위의 공간 이동이 가능해졌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활권이 작

게는 거주지로, 크게는 주변 지역 정도로 축소되었다. 축소된 생활권에 반비례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며 적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고민해 볼 사이도 없이 우리가 미래에 진입하는 속도를 순식간에 높여버린 듯하다. 문화를 향유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아직 먼 미래라 예상되었고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여겨온 문화 현상들이 급속도로 기획되고 수용되고 있다. 오히려 반전이라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은 익히 들어왔지만 아직은 생소하게 여기는 문화 현상에 하루빨리 적응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듯하다. 이에 여기서는 이러한 문화 현상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신기술과 문화유산 보존

정부는 최근 디지털 신기술을 토대로 문화유산 보존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맞춘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과제의 일환이다. 특히 궁궐, 문화유산 코스, 무형문화재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이 문화재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창덕 아리랑(AR-irang)’은 세계 최초의 세계유산 안내 애플리케이션으로 5G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었다. 2019년 2월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작업을 통해 2020년 7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창덕 아리랑’은 600년째 창덕궁을 지키는 설정의 해치를 통해 금천교부터 후원 입구까지 총 12개 관람구역을 안내했다. 한 예로 증강현실을 통해 출입제한 구역인 후원으로 들어가면 부용지 주변 풍광도 여유 있게 향유할 수 있다. ‘점프 VR’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덕수궁 석조전 내부를 전방향으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수 단말기가 필요 없이 개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통해 다채로운 석조전의 모습을 맘껏 살펴볼 수 있다. 황제가 앉았던 의자에 직접 앉는 것 같은 가상 체험도 할 수 있고, 중화전과 내부 관람이 제한됐던 함녕전, 석어당 내부도 가상공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덕수궁 실내 시설인 석조전 내부와 중명전 관람이 중지되었다. 5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은 궁궐 전체 관람도 중단됐다. 덕수궁 가상·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비대면 문화재 관람 서비스’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한국문화축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었던 수많은 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0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020년 처음 열리는 한국문화축제는 한류 호감도 향상 및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한류 및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K-팝에 집중된 관심을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특히 2020년 한국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들의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K-팝 공연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상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마켓 기획전을 기획했다. 이를 계기로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다.

축제가 열리는 11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시장에서는 화장품, 식료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 상품과 지역 특화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K-팝 가수들과 유명인들도 직접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문

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과 전 세계 한류 동호인에게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별 보유 자원을 연계하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해 한국문화축제를 신한류의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매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 온라인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무대의 공연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팬 미팅은 기본이고, 이벤트에서 당첨된 해외 팬과 아이돌이 일대일로 화상통화 하는 '비대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기획사는 온라인 콘서트를 추진해 새로운 마케팅과 수입원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기획해 제작하고 있어서, 대중도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K-팝 비대면 공연을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팝) 공연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는 미술계에서 작품을 향유하는 방식과 마케팅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예술 작품을 고화질 이미지로 변환해서 가상현실 방식으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VR 전시관'으로 전시하고 있다. 미술 작품의 유통도 먼저 온라인 방식으로 선보이고,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콘텐츠로 전통적 문화예술 작품과 활동이 전환되면서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예술양식의 개념

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디지털 아트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장르로 선호 받고 있다.

'온라인 예술콘텐츠' 정책 및 예산 지원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반영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디지털 혁신방안이 담겨 있다.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의 비대면 기반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화상 강의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전면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상호반응 교육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 음악(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해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시민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 콘텐츠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중·저예산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액수도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하는 등 정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디지털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려 한다.

지금 이곳은 전환의 시대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활동이 특별한 이벤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컬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절한 디지털 기술의 운용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문화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은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거리상의 시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성장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은 의도치 않았던 외부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새로운 문화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기존 방식으로 수행해 온 문화원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한실(幻實)개념으로 본 포스트코로나19

— 4차 산업혁명을 문화원혁명으로 —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이 학 주

코로나19는 돌림병이다. 돌림병은 잘 알려진 병과는 달리 예방약과 치료약이 없다. 그 때문에 아주 많은 인명을 앗아간다. 새로운 돌림병은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를 정도로 확산속도가 빠르다. 14세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을 보면, 새로운 돌림병엔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다. 그 때문에 돌림병이 갑자기 닥치면 새로운 문화형태(文化形態)가 주어지게 된다. 시체를 열어 놓았던 덕거리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 외에도 귀신(鬼神)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돌림병이 모두 귀신의 조화(造化)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덕거리는 신체를 쌓아두었던 금기장 소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돌림병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귀신의 영역은 인간이 다갈 수 없는 시공이다. 우리는 이런 시공을 일러 시공세계(時空世界)라 한다. 3차원의 시공에 4차원의 시간을 더한 세계이다.

이때 인간과 귀신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볼 수 없다. 환상세계(幻想世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 있다. 실제의 모습이 있으나 단지 보고 만지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3차원의 시공에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4차원의 시간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알파고(AlphaGo)와 알파제로(AlphaZero)의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알파고는 인간이 이룩한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학습해서 판단하는 방식이다. 거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며 학습을 한다. 고(GO)는 바둑을 뜻한다. 알파제로는 인간이 이룩한 지식의 도움이 없이 독학으로 바둑, 체스 등을 터득한 구글의 인공지능이다.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터득한다고 해서 제로(0)이다. 우리가 여기서 포스트코로나19의 학습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곧, 알파고는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란 실재(實在)를 기반으로 학습이 주어져 삶의 방식을 터득한다. 그런데 알파제로는 '상상의 것', '알 수 없는 것'이란 환상(幻想)을 끌어와서 실재로 만들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지배하는] 기능이다.

인간(人間)과 귀신(鬼神)의 차원은 이렇게 다르다. 그렇다면 귀신은 분명 존재한다. 다만 시공(時空)

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 누천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인식했던 귀신론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적해 놓은 귀신론을 활용(活用)하자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시공세계글쓰기'란 이론을 만들었다. 1)그리고 시공세계글쓰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했다. 시공세계글쓰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와 '귀신의 세계'에 가서 글감을 가져와서 현실에 맞게 글을 쓰는 방법이다. 이때 환상의 세계와 실재를 연결하는 고리만 있으면 된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믿음을 줄 수 있다. <주라기공원>에서는 모기의 피가 연결고리였다.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고집어냈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만복사라는 낡은 절이었다. 만복사를 연결고리로 인간과 여귀의 만남을 이끌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꿈(夢)이었다. 꿈을 연결고리로 인간과 저승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보면 모두 시간여행(時間旅行)과 공간여행(空間旅行)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공세계를 매개를 통해서 여행한 것이다. 이때 연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가치창출'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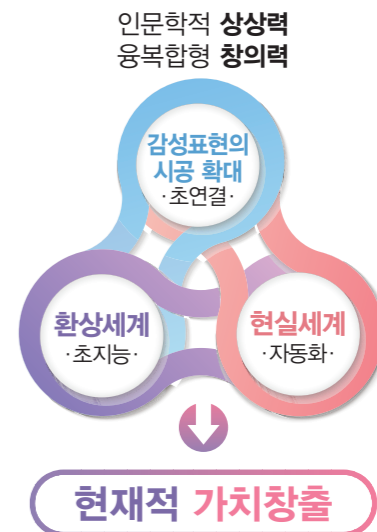
현재적 가치창출은 '목적 실현'이다. 글쓰기는 개인의 상상력을 현재화 하는 작업이다. 이를 좀 더 쉽게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이론으로 대입해 보자. 필자는 「금오신화」를 통해서 위에서 설명한 시공세계글쓰기와 4차 산업혁명의 이론을 연결시켜 보았다. 2)4차 산업혁명은 잘못 설명하면 복잡하다. 그러나 이를 구조화 하면 ①빅데이터 초지능 ② 컴퓨터 초연결 ③ 원하는 정보의 자동화 ④ 목적을 이루는 현재적 가치창출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여러 컴퓨터에 있는 산재해 있는 자료이지만 환상의 세계이다. 아직 내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단어를 넣어서 자동실행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환상과 실재가 초연결을 통해 자기

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공이 만들어진다. 이를 내가 현재에 어떤 목적을 위해 쓸 것인가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할까? 이 시점에서 '홍익인간 프로젝트'를 권하고 싶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환웅천황의 제세(濟世)이념이다. 환웅천황은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우리나라를 열고 백성을 다스렸다. 환웅천황은 하늘에 있는 신인(神人)이었지만 인간으로 변해서 웅녀와 결혼해 단군을 낳기도 했다. 환웅의 아버지는 환인으로 하느님이다. 곧 환상의 세계이다. 단군왕검이 있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곧 포스트코로나19의 대응력이다. 이미 비대면 수업이며 비대면 공연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 이론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단계별 학습 내지는 단계별 연습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마치 게임을 할 때 1단계 2단계로 나아가서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것처럼 학습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하늘이라는 환상세계는 아직 가지 않은 미지의 학습시공이다. 이를 하나씩 단계를 밝아 학습을 하여 현실세계인 학습자가 터득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최고 단계에까지 이르면 그에 상응하는 졸업장이나 상장 내지는 명인의 표식을 수여한다. 공연프로그램의 경우는 개인별 연습을 끝내고 여럿이 함께 실제 공연을 연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입력된 학습 내용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입력되지 않은 내용까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곧,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중심학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기주도는 모자란 부분을 스스로 채워 나가는 학습방식이고, 자기중심은 먼저 목표 내지는 꿈을 설정하고 스스로 재능을 찾아 이뤄나가는 학습방식이다.



1)이학주, 「인제 마의태자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 콘텐츠 방안:시공세계(時空世界)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 『동방학』36, 한서대동양학연구소, 2017.2.

2)이학주, 「금오신화」의 4차 산업혁명 성향과 글쓰기 교육활용: 감성표현의 시공확대와 현재적 가치창출, 『어문론집』77, 중앙어문학회, 2019.

3)이학주, 「〈구운몽〉을 통해 본 자기중심학습 개발」, 『어문론집』80, 중앙어문학회, 2019.



01 순국 100주년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가다

천안동남구문화원 박승일



3·1운동의 상징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혼의 표상 유관순 열사는 조국의 독립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20년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열사의 순국일은 9월 28일.

본원에서는 작년까지 45회 동안 ‘유관순열사 추모제 기념, 백일장 사생대회 공모전 및 시상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번 100주년이 되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감염증19’로 인해 안타깝게도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부족함을 보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팔팔한 성격에 성경 구절을 한 번 들으면 줄줄 외울 만큼 총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유교적 전통과 충효사상을 깨우치고 기독교 바탕의 신문을 배워면서 민족정신을 키워갔습니다. 유관순이 8살이었던 1910년, 우리 민족은 치욕적으로 국권을 강탈당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강한 확신과 의욕을 가지고 있던 사애리시 부인이 영민한 유관순을

주목하였고, 1915년에 유관순은 교비생으로 이화학당(이화여고·이화여대의 전신)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광무황제)의 서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민족대표 33인은 이 사건을 독립운동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마침내 3월 1일, 전국에서 몰려온 애도행렬 앞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발표로 3·1운동은 시작되었고, 2천만 민중의 한목소리는 우리 동포가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 어디서든 울려 퍼졌습니다. 이화학당 고등과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 역시 김복순, 국현숙, 서명학, 김희자와 함께 ‘5인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고향인 이곳 병천으로 내려간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에 아우내장터에서 열린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옥중 동료들을 격려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은 그때마다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이듬해인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 형무소 감방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태극기를 손에 쥐고 맨몸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맞섰던 소녀 유관순 열사의 생애는 순국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동을 전합니다.

이곳 주소인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유관순열사유적지’에 오면 넓은 광장에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 곳 중앙에 우뚝 서 태극기를 들고 서 계시는 유관순 열사의 당당하고 늠름한 기개도 방문자에게 에너지를 심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열사 주변의 풍경에 취해보도록 하시죠 이곳 유적지에는 열사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각이 있고, 그 주변에는 영정과 가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관순열사 추모각을 좀 지나면 순국자 추모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우내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47분의 넋을 기리고자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봉화탑과 초혼묘를 보러 올라 갑니다. 초혼묘는 200m, 봉화탑 400m정도 거리가 됩니다. 다시 내려와 광장입구 좌측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유관순열사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이 있고, 감옥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등 열사의 위대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기념관 반대편 산을 넘어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면 유관순 열사 생가지를 재현해 놓은 장소도 나옵니다. 문화원이 위치한 이 곳 병천에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신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 노력합니다. 단풍이 깊게 물든 계절인 가을에 드라이브 삼아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순국 100주년이 되는 올해 독립을 위해 평화적 항쟁을 하셨던 열사님께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02

초속 5센티미터
충남역사박물관



공주문화원
정지은

구룡지대 모두가 벚꽃 포토존



손과 발을 얼어붙게 했던 추운 겨울이 지나면 설레는 봄이 온다. 그리고 봄이 오면 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첫 대사가 생각난다. “있잖아, 초속 5센티미터래.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나 역시 매우 공감하는 ‘초속 5센티미터’다. 봄은 추운겨울 내내 기다렸던 만큼 더디게 왔다가,

어느 순간 가버린다. 옥룡동과 중동 사이에 있는 고개에 봄의 속도, 봄 의상, 봄 노래, 봄 배경 등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노란 개나리와 핑크빛이 한데 아우르는 장소, 가까우면서도 봄의 향기를 물씬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공주시사람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충남역사박물관이다.

충남역사박물관은 본래 국립공주박물관의 옛 자리였다. 구 국립공주박물관은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됨에 따라 그 출토품 전시를 위하여 1972년에 착공하여 1975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박물관의 1층은 무령왕릉을 테마로 2층은 무령왕릉 이외의 유물을 모아 꾸며 놓았었다. 구 공주박물관의 건립계획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부장품을 수장, 전시하기 위해 계획 되어졌는데 현재의 국립공주박물관과 같이

주변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건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 국립공주박물관이 웅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2006년 옛 박물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충남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내부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이 더욱 길다. 이유는 박물관 정원에 있다. 특히 봄이 되면 정원에 봄을 만끽하러 온 사람이 가득하다. 아침에는 아침대로 또 저녁과 밤은 또 그 나름의 느낌이 다르다.

이 곳 정원에는 아름드리 벚나무 30여 그루와 80년 이상 된 금송 3그루가 서있다. 이 금송은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재로 쓰인 나무와 동일한 수종으로 우리나라의 소나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가지가 많고 솔잎이 무성한 것이 외관상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통해 웅진백제시대 때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준다고 한다. 해가 잘 드는 충남역사박물관은 어디서 찍든

돌아가는 발걸음을 아쉽게 하는 풍경



구 국립공주박물관, 현 충남역사박물관

사진이 잘 나온다. 그중에서도 박물관에서 구룡지대로 오르면 그 구룡지대가 모두 포토존이 된다. 땅에 굴러다니는 벚꽃조차 핑크색 눈 같기도 하고... 겨울인 듯 봄인 듯 그렇게 즐거운 풍경을 자아낸다.

4계절이라고 하지만 유독 짧게 느껴지는 아쉬운 계절이 있다. 그래서 더 기다려지고 아쉬운 봄이 아닐까?



03 장암서예관

보령문화원
김명희



장암서예관 관람시간

평일 : 09:00~18:00

주말/공휴일 : 09:00~18:00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김명희

2020년 보령문화의전당에 『장암서예관』이 개관하였다.

보령시는 지난 2009년 보령출신 서예가 장암 이곤순 선생의 작품과 소장품 2,300여 점을 기증받았으며 문화의전당 내 277.28㎡ 면적에 전시실을 만들어 선생의 호를 딴 장암서예관을 열어 선생의 온화한 성품과 이를 바탕으로 추구해 온 독창적인 작품세계와 활동 공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장암 이곤순 선생은 대전과 충청지역 현대 서예사의 1세대 작가로 1960년대 후반부터 대전·충청권 서예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서맥에 뿌리를 둔, 한국 서예의 적통을 이어온 현대서단의 대표적인 서예가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중후하고 단아한

예서작품을 주로 발표하였고 일중 김충현 선생의 필의를 이어받아 개성미를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개토대왕비를 즐겨 임서하는 등 금석문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장암선생만의 서체의 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글과 예서 및 행초서에서 전통을 법으로 삼아 새롭게 창신한 특유의 서체를 선보이고 있다.

장암서예관은 충청남도의 서단뿐만 아니라 한국 서예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장암선생이 독자적으로 추구해 온 작품세계와 활동 공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선생의 대표작과 근작들로 전시관을 구성하였고, 선비와는 땀 수 없는 문방사우, 선생이 직접 조각한 전각자료까지 전시하여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특히, 송시열의 친필을 볼수 있는 서첩인

『경한당기』, 동기창을 비롯한 15~16세기 중국 명대 후기 서예가의 서첩,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일중 김충현 선생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전통 예술인 서예의 멋을 감상해 보길 권유드린다.

서예관이 있는 문화의전당 2층에는 2013년 개관된 보령박물관이 함께 있어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기에 좋다. 보령의 근현대 전시 공간인 시간의 골목에서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추천 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트릭아트도 즐거운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야외에는 최근 장항선 개량공사 중 보령 주산면 간치역 동쪽 구릉지에서 발굴 조사된 굴식돌방무덤을 옮겨와 조성해 놓았으니 이곳까지 한 바퀴 돌아보면 다양한 볼거리에 마음이 든든해 질듯 싶다.





04

충청남도 기념물 제 115호 온양향교 건축을 만나다

온양문화원
김 형 기



온양향교의 창건연대와 창건당시의 위치 및 중간의 변천사 등에 대해서는 문헌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이 아쉽다. 다만 온양의 연혁을 보면 고려전기(현종 이후)에는 천안부의 임내였고, 명조 2년(1172)부터 감무가 파견되다가 조선 태종조에 비로서 현감이 파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태종 14년에 신창현과 변합되어 온창현으로 고쳐져 현감이 파견되기 시작하다가 태종 16년 온천에 거동하면서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는데 온양향교도 조선태종조 이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온양군 학교조에 향교의 위치가 읍의 서쪽 1일 지점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중종조 이전에는 향교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지의 구전에 의하면 온양향교는 원래 지금 위치인 읍내동에 인접한 법곡리(능피)에

있었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1610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고 전한다. 온양향교 대성전에는 오성과 송조이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향교부지는 1,945평으로 현존건물은 1982년에 전면 보수한 것이다.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향교의 건물배치는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남북 일직선상으로 있고 같은 해 건립된 홍살문이 있으며, 명륜당과 동재 대성전은 내.외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서재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향교건물의 규모는 대성전 19평, 명륜당 20평, 동재 11평, 기타 건물 4동 22평이다. 이 중 대성전은 중층기단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익공식의 형태다. 기단은 막돌허튼층 쌓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연초석 및 원형초석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초석 중에는 재사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석 위에는 배흘림의 원주를 세웠다. 건물의 전퇴간은 고주와 평주가 퇴량에 의해 결구되어 있다. 정면의 3칸은 모두 궁창판이 있는 2분합문의 띠살창호로 만들어져 있으며 좌우 측면은 화와 돌을 섞어 만든 반 담이 설치되어 있다.

배면은 회사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고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도리식 건물이다. 화강암으로 된 중층의 기단 위에 자연초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명륜당이란 판액이 걸려있다. 좌우의 협간은 2분합문으로 역시 띠살문이며 측면의 경우는 중앙 3칸보다는 작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간에는 각각의 장방형의 섬돌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은 회사벽으로 되어 있고 배면의 경우에는 어간과 협간에만 창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은 2분합문의 궁창판이 있는 띠살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온양향교에는 전적과 고문서 등이 남아 있지 않으며 소수의 소장도서는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양장 도서들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14-11(읍내동)에 위치한 온양향교는 매월 초하루날과 보름날에 제 40대 전교님을 중심으로 100명의 유림회원들과 명륜회라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분향예를 올리고 있으며 매년 음력 2월달과 8월달 상정일에 석전대제를 올리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예를 가르키고 있으며 가을에는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향교 풍류음악회를 개최하고 매년 거행되는 고불맹사성 송모제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자의 고향인 중국(한국공자문화학당)에서도 온양향교를 방문하여 석전대제 진행 과정과 대성전 봉행례 등 유림들의 활동 전 과정을 촬영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하고 중국에서 널리 전파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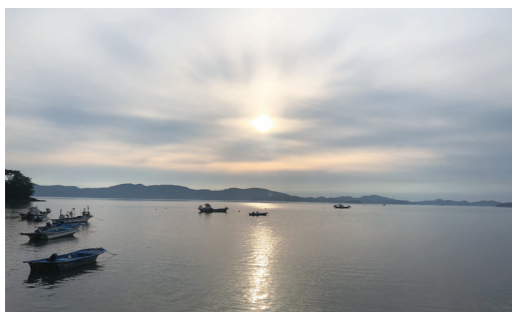


05



이슬이 더해지는 숲을 이룬 곳, 서산 가로림(加露林)만

서산문화원
장은 아



가로림만이란 이름이 생소할 만하다. 한자로만 풀이 하자면 말그대로 ‘이슬이 더해져 숲을 이룬 곳’일텐데 이것저것 찾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다. 가로림은 순우리말[갈]과 [ㅅ벌]을 합쳐서 훈민정음 창제 전에 “갯벌”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다. 이 생소하지만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으로 출발해보자.

서해안고속국도를 타고 가다가 서산시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10여 km를 가다 보면, 서쪽으로 광활한 갯벌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태안반도에서 유일하게 원지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는 가로림만 갯벌이다.

이곳은 2016년 7월 국내 최대 규모 해양보호 구역(91.237km²)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흰발농게 등 보호생물종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운이 좋은 날에는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내 운을 모두 쏟아 단 한번만이라도 점박이 물범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하다.

가로림만에 가면 어떤 먹거리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먹거리는 낙지이다. 10월에는 “서산 빨낙지 먹물축제”가 중리포구에서 열리며 제철 맞은 낙지는 기운을 불끈 솟게 할 것이다. 낙지가 별로라면 인접한 서산의 다른 동네에서도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5월엔 왕산포구에서 바지락을, 6월에는 팔봉산에서 감자를, 8월에는 삼길포에서 우럭을 제철음식으로 맛볼 수 있다. 군침이 도는 가로림만이다. 다 먹고 나면 슬슬 몸을 움직이고 싶어질 테니 주변 체험거리들도 준비되어 있다.



바다에 가는 만큼 어촌 체험마을은 어떨까? 대산읍에는 ‘웅도어촌체험마을’ 지곡면에는 ‘중리어촌체험마을’이 있어 직접 몸을 움직여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도 채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숙박의 대세인 차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벌천포, 웅도, 중왕리 등 차박이 가능한 여러 곳들이 눈에 띈다. 감상사진 몇 장 찍어 자랑거리를 좀 남겨볼만 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서해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해가 곧 지려고 할 때 짙한 태양이 바다로 빠져들면서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그때 세상은 고요하고 나만 혼자 그곳에 있는 것만 같은 환상. 그런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그러면 복잡했던 머리도 마음도 모두 정리되고 한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줄 것만 같다. 머릿속이 복잡한 올해 겨울의 길목에서 가로림만을 방문해보길 권해본다.





06



논산 탐정호

논산문화원
전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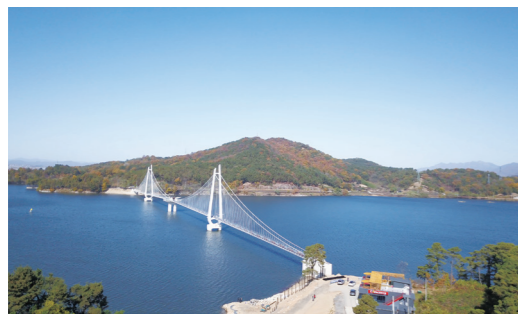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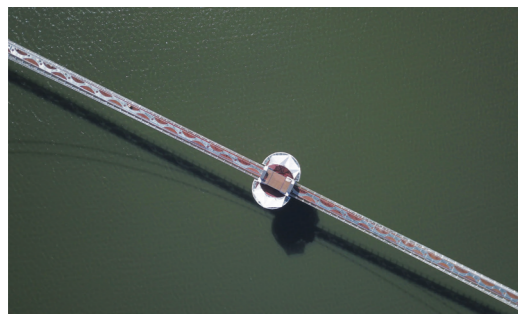


사진 | 이광수

충남에서 농업용 저수지로는 두 번째로 넓은 탐정호는 논산 8경 중 제2경이다.

탐정호는 1941년에 착공하여 1944년도 준공되었다. 제방의 길이가 573m에 높이가 17m이다. 논산시 부적면과 양촌면, 가야곡면, 벌곡면에 걸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드라이브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 있는 곳에 따라 느낌이 매우 다른 곳이 탐정호이다. 부적면 신평리 쪽에서 바라보면 저녁노을은 호수를 깔고 서산으로 넘어간다. 건넌 걸음을 잠시 멈추고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의 피로와 근심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하다.

대둔산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물이 맑기로 유명한데 잉어와 쏘가리 등 각종 담수 어족이 풍부하여 많은 낚시꾼이 몰린다. 이런 다양한 어족이 많이 잡혀 주변에는 매운탕, 참계탕 등으로 유명한 맛있는 식당들도 위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탐정호 수문 근처에 카페들이 들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또한 여름에는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도 한다. 논산시에서 조성한 탐정호 소풍길은 백제군사박물관, 돈암서원, 사계 선생 묘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로 힐링 코스이다. 논산문화원이 주관하여 박범신 작가와 이 코스로 매년 소풍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산시는 탐정호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찾는 논산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생태공원을 준공하였다. 수변생태공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이고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더욱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다. 수변생태공원과 탐정호 수문까지 이어지는 수변 데크길은 함께 산책하거나 혼자 사색하며 걷기에 좋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사는 탐정호의 출렁다리이다. 이 다리는 2018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3월쯤 완공 예정이다.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와 가야곡면 종연리를 연결한다. 주발 2개와 교각 3개로 구성된 600m 길이는 아시아 최장 출렁다리라고 한다. 단순히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일차원적인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 논산의 랜드 마크가 되고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가 되었으면 한다.

흔히 관광명소라고 하면 현지인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찾고 즐기는 장소처럼 들린다. 진정한 문화공간은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본다. 새롭게 단장될 논산 탐정호 일원은 논산 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주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많은 관광객을 풍경으로 유혹하는 매력적인 곳이 되길 기대해본다.





07

바다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당진 왜목마을



당진문화원
강대원

· 당진 왜목마을

주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15-5

· 당진 왜목오토캠핑장

주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43

예약 : 당진해양캠핑공원

(www.camping.dpto.or.kr)에서 예약 가능

문의 : 041-363-9229

‘해뜨고 지는 마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당진 왜목마을.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당해의 일몰과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는다. 당진에서는 왜목마을을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의 지원(모래)으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모래 포설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왜목마을은 비로소 해수욕장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피서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왜목마을은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바로 ‘차박성지’로 불렸다. ‘차박’은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여행 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로 왜목마을 내 모래사장에 차량이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했던 이유로 캠핑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게다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탓에 왜목마을의 ‘차박성지’ 아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쓰레기무단투기와 모래사장 환경 저해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결국 당진시에서는 해수욕장법에 의거해 지난 9월 초부터 차량의 모래사장 진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제 ‘차박성지’라는 꼬리표는 떨어졌지만 왜목마을은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마련하여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요즘 요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김승진 선장의 요트 세계일주의 시작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왜목마을이다.



당진시에서는 요트 세계일주 홍보관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동시에 여름이면 관련된 해상레저 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다 낚시와 갯벌체험 및 조개잡이를 즐길 수 있으면서 인근 야산 정상에 왜목오토캠핑장이 올해 상반기에 개장해 탁 트인 오션 뷰를 보면서 낭만적인 캠핑이 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이곳은 카라반 전용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왜목마을에 볼거리 하나가 더 추가 되었다. 2018년 말 해변 끝에 설치된 새빛왜목 조형물이 그것이다. 새빛왜목 조형물은 전국 최대 해상조형물로 꿈을 향해 비상하는 왜가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물이다. 가로 9.5m, 너비 6.6m, 높이 30m 규모로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8.5m)보다 약 3.5배 높다. 수직상승형의 트러스 구조로 스테인리스 스틸판에 주변 풍경의 색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작되었다. 해가 진 무렵부터는 조형물 상부에 설치된 나선형의 LED조명이 발현하여 왜목마을 해변의 밤을 한층 따스하게 밝히고 있다.



금산문화원
김 소 연



이치대첩지는 임진왜란 최초의 육상 이치대첩의 승전지로 그 역사적, 문화적 의의가 크다. 충청남도의 금산군은 물론,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금산문화원에서는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충절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치대첩기념제가 진행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전승지인 이치는 대둔산 중허리를 넘어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상 중요한 곳이다. 임진년 7월 경상도와 충청도를 휩쓴 왜적이 군량미의 현지보급을 꾀하여 호남평야로 진출하려한다. 적장 고바야가와가 거느린 2만 병력을 이끌고 대둔산 넘으려 했으나 권율 장군은 동북현감 황진과 1,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둔산을 지켜 왜적의 호남진출을 막아낸다.

08



통쾌한 승전의 역사와 함께! 이치대첩 기념지

왜적은 수의 우세함과 승승장구한 힘을 믿고 단숨에 대둔산을 넘으려고 덤벼들었으나 권율 장군은 전 병력을 독려하여 결사전을 벌려서 적을 섬멸한다. 이치대첩을 통해 조선군은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국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꾸어 대첩을 올리게 되며 진주대첩, 행주대첩 등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낸다.

현재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소재의 이치대첩지는 200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었으며 권율장군이치대첩비는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됐다. 또한 금산군에서는 이치 대첩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금산문화원에서는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한 충장공 도원수 권율장군과 휘하 관군 및 의병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이치대첩지를 역사적 전적지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자 이치대첩 기념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치대첩기념제는 한 여름의

더위가 한 풀 사그라드는 8월 말에 열린다. 대둔산의 깊은 산세가 주는 시원함과 이치대첩의 승전의 기쁨은 시너지를 발휘한다.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치대첩기념제가 열리는 이치대첩지에서 권율 장군은 대둔산의 지리를 이용해 왜적을 섬멸하게 된다. 대둔산은 그 만큼 산세가 깊고 웅장하다. 수려한 산세와 계곡물의 소리에 취해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이 모여든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로 국토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대둔산은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좋아 오토바이를 즐기는 이 들도 이곳에서 만나며 시원한 라이딩을 즐긴다. 또한 단풍이 화려하게 드는 것으로 유명해 단풍이 드는 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치대첩지 풍경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9

가을여행의 결정판 백마강의 은빛물결

부여문화원
이 미 영

가을여행으로 부여를 찾는 사람들은 부소산성과 무량사의 단풍, 궁남지의 국화전시, 대조사와 성흥산성 사랑나무를 감상하기 위해 부여에 온다. 하지만 요즘 백마강변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백마강에 조성된 코스모스와 억새를 보기위해 몰려드는 많은 관광객에 부여 사람들은 놀랍기만 하다. 부여주민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이곳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주말이면 백마강변 뚝방 길이 주차장이 될 지경인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4대강 사업이후 억새가 자생하기 시작하자 2015년 국가하천 수변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2017년에 본격적으로 코스모스와 억새를 심었다.



백마강 구드래 둔치에 만개한 코스모스

구드래 둔치에 조성된 코스모스는 백마강 구드래에서 백제대교 구간까지 약 2km(12ha)에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올해는 긴장마로 인해 예년보다 늦게핀 코스모스가 가을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하고 있다. 한 가지 Tip으로 이른 아침 물안개 낀 백마강 코스모스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다.



백마강변 억새

백마강 억새를 보기위해 백제대교 옆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시인 신동엽 시인의 『산에 언덕에』를 만날 수 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 날지어이 ~】를 읊조리며 시비를 지나 백마강 하류 뚝방길을 따라 내려가면 부여대교에서 중정 배수장

구간 약 4km(30ha)에 조성된 억새를 만난다. 이 억새밭을 뚝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강물에 반사된 억새의 은빛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듯 신비롭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억새밭으로 들어가면 곧 사라진다. 키 큰 억새는 사람을 감추고 마치 아무일 없는 듯이 흔들흔들 제 흥에 겨워있다. 이때 억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억새가 된다. 백마강 물억새에 내려앉은 노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노을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곳을 찾은 많은 블로거들이 ‘노을 관광지’라 부르는 이유이다.

사진을 찍기위해 몰린 작가들의 카메라가 바쁘다. 노을이 지는 시간이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뻗어 사진을 찍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부여 백마강변 물억새 단지는 앞으로 ‘노을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가을여행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을에 물든 백마강 억새





10



문화예술창작공간 '장항미곡창고'

서천문화원
김이슬

금강을 끼고 있는 서천군 장항읍은 일제가 약 172만㎡에 달하는 바닷가를 매립해서 만든 곳이다. 1920년대부터 대일 곡물 출항 항구로서 역할이 시작되면서 장항항과 더불어 장항선 철도가 개통이 되고, 1936년에는 조선 제련 주식회사(장항제련소)가 설립되면서 유동 인구도 많았던 활기찬 도시였다. 충남과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데 사용된 곡물 출항의 중심지인 장항항에는 많은 미곡창고들이 있었다.

옛 흔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미곡 창고.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곳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32에 장항 미곡 창고만 남아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독특한 건축기법과 역사 교육 자료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91호로

·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주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운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일, 월 휴관)

※일요일은 단체 예약 시 임시 개장

관람료 : 무료(※일부 체험 프로그램 유료)

연락처 : 041)956-3161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ehqha>

페이스북 : www.facebook.com/wkdgdansghk5

지정되었다. 근대문화유산인 장항 미곡창고는 1936년에 건축된 창고로 1980년대 중반까지 도선업과 수산업으로 번창했던 곳이다. 그러나 장항제련소의 가동 중단으로 장항역의 운송 분담 역할이 축소되면서 쇠락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후 한동안 잊혀있던 이곳은 2012년 7월 공장미술제를 계기로 회화, 조각, 영상 등의 젊은 작가 130여 명이 참여해 미곡창고와 어망공장 등을 이용해 시험적인 예술창작 무대로 활용하면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서천군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2013년부터 과거의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될 수 있는 한 미곡창고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공연과 작품전시,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전시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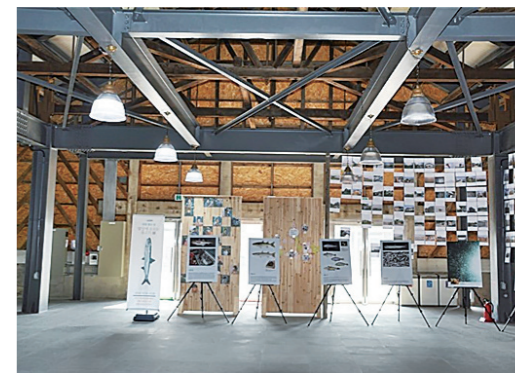
2014년 인형극단·연극 패·전시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예술인들에 의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4월에는 인형극단 또봄이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연·전시·체험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곳에는 체험 카페·다목적홀(공연장)·전시장 회의실 등의 공간이 갖춰져 있다.

제주도에 유명한 한 카페는 과거 공장이었던 공간을 예술적 감각의 카페로 재탄생시켜 sns등에 자주 업로드되는 등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이처럼 폐건물을 재탄생시키는 일은 근래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이다. 시대적인 색이 묻어있는 건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독특한 느낌을 내는 건축물들은 현대에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이슈화가 됨으로써, 예술·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폐건물은 부수어 새로 짓기보다는 보존되어야 한다. 10년전만 해도 폐건물을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본 적은 없다. 근래 들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11

청양 다락골 줄무덤 성지



청양문화원
박 상 준



차령산맥의 줄기가 지나가는 서해안에서 보기 드물게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는 오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청양 다락골은 굽이굽이 산비탈 중턱에 40여 호의 인가가 모여 있는 두메산골이다. 조선 시대에는 홍주(지금의 홍성)골에 속했으나 지금은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라는 행정구역 명으로 불리고 있는 다락골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와 그의 부친인 최경환 성인이 탄생한 유서 깊은 교우촌이자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다.

줄무덤(줄묘)은 한 무덤에 여러 사람을 함께 묻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 순교자수와 성명과 순교경위를 알 수 없지만 가족 단위로 묻혀 37기가 있으며 지금도 이 다락골에는 소실된 인가의 흔적이 10개소나 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주교도의 집단마을로서 마을 전체가 참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새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곳은 서울, 경기, 내포(충청도 북서부), 전라도 북부지역에 형성된 큰 신앙공동체의 중간에 위치, 서로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온갖 역경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특히 홍선대원군의 정치적 계산과 서구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이 맞아떨어진 병인박해는 8천여명 이상의 순교자를 만든 크나큰 비극이었고, 1868년 4월 오페르트(Oppert)가 충청남도 덕산에 위치한 남연군묘(南延君墓)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새터를 비롯한 내포지방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이때 홍주감옥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의 유해를 야음을 이용해 이곳으로 옮겨다 매장하면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줄무덤이라고 한다. 황급히 줄을 지어 가족끼리 시신을 묻은 까닭에 얻은 이름이다. 마을의 구전에 의하면 병인박해 때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끌고 가자 무서워 우는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얘야, 지금 죽어야 천당 간다"라고 달래어 함께 순교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김대건신부와 더불어 최초의 유학 신부이며, 김대건 신부에 이어 두 번째 신부(사제)인 최양업신부(1821~1861)의 출생지이다. 숨어다니며 신자 마을을 찾아 수십리 길을 걸어 다니는 등 눈부신 전교활동을 한 신부이다.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성지이다.



· 줄무덤의 기수에 대하여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방윤석 베르나르도 신부님에 의해 이 마을의 구전과 사료를 수집하여 현지 답사를 계속한 끝에 1981년에 줄무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임을 밝혀냈으며, 편의상 제 1,2,3 줄무덤으로 구분하였다. 제1줄무덤은 14기로서 세 단계로 모여져 있다. 오기선 신부님의 증언에는 17라는 하셨으나 지금은 14기가 있는데 비신자인 최씨들이 임자없는 무덤이라 하여 이장하는 바람에 아깝게도 3기가 파묘 유실되었다. 제1줄무덤 서남쪽으로 밑으로 20m쯤 떨어진 지점에 10기의 제2줄무덤이 있다. 제3줄무덤은 제1줄무덤에서 100m 떨어진 능선 너머에 위치해 있는데 13기가 있다. 이렇게 이곳에 있는 무명 순교자의 무덤 수는 모두 37기가 된다. 그러나 각 무덤에 몇 구의 유해가 들어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발 당시에 무덤들이 100년이 넘었고 흙을 쌓지도 않았는데, 유난히 봉분이 큰 것으로 보아 한 무덤 안에 여러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82년 대전교구에서는 이들 무명순교자들을 위한 묘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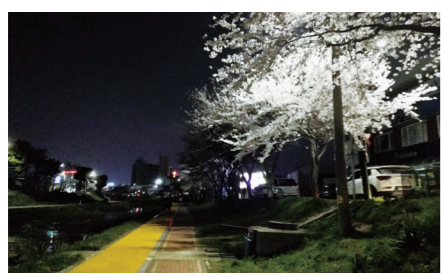
12



홍성천 벚꽃길



홍성문화원
조 남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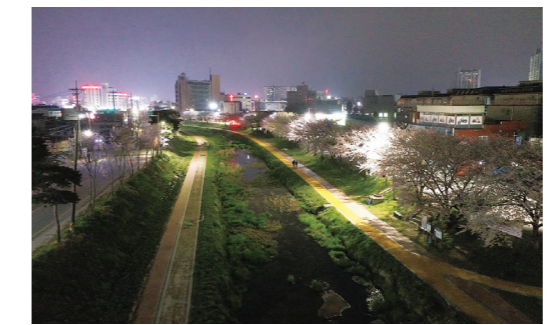
한자에서 가로로 넓은 것을 광(廣, 넓을 광)이라 하고, 세로로 넓은 것을 홍(洪, 넓을 홍)이라고 한다. 홍성에는 홍성(洪城)읍과 광천(廣川)읍이 있으니, 지명으로만 본다면 아주 넓은 곳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홍성의 원래 이름은 홍주(洪州)였으나 일제가 강제로 이름을 변경시켰다. 2차에 걸친 의병활동과 일제에 항거하는 뿌리깊은 충절의 정신이 스며있는 이곳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만고의 충신 최영 장군과, 사육신 성삼문 선생,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등이 모두 홍성에서 태어난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홍성(洪城)은 넓은 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주의 홍(洪)자와 결성(結城)의 성(城)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다. 홍주는 목사가 주둔하며 평택 이남에서부터 서천까지 관할하던 매우 큰 지역이었다. 충청도의 4대 큰 도시인 청주 충주 공주 홍주중에서 유독 홍주만 그 이름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예전의 홍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호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옛 홍주의 이름을 되찾자는 운동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넓은 홍성을 가로지르는 홍성천변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가꾸어 온 벚꽃길이 봄이 되면 화려한 모습으로 피어난다. 옥암리의 하천을 따라서 오관리 홍성 시내 한복판까지 내려오는 이 벚꽃길은



도로옆에 가지런한 모습으로 하천 산책길을 뒀고 있어서 봄이 되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낮을 잃고 바라보는 곳이다.

봄의 파릇한 잔디색과 벚꽃의 연한 핑크, 푸른 하늘 빛을 함께 볼수 있어서 더욱 사랑받는다. 그윽한 아침별도 좋고 한낮의 짙한 빛도 좋고, 가로등 밑에서의 야경도 매우 아름답기에 하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천과 도로가 바로 인접하기에 누구라도 차에서 내려 접근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밤이 되면 산책길 여기저기에 돛자리를 펴고 가볍게 술 한잔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몇 시간씩 벚꽃을 감상하기도 한다. 때에 맞추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밤만 되면 무료 공연을 펼치는 것도 밤 나들이를 즐겁게 한다.

벚꽃이 살며시 엔딩을 고하면 건너편의 길가를 아름답게 수놓는 꽃잔디도 홍성천변의 오래된 고참이며 또한 명물이기에, 빼 놓으면 섭섭하다고 할 것이다.



13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예산문화원
장 혜 민

제가 소개 해드릴 곳은 금년도 내포에 새로 생긴 보부상촌입니다. 예산에 소개드릴 관광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이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보부상을 다룬 곳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제가 맡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보부상 단원들을 모시고 사업 진행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에 열렸던 2018 청소년 민속 예술제라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어 보부상은 저에게 나름대로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부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붓집을 지고 다니는 붓집장수와 등집을 지고 다니는 등집장수 등이 모여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움직이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장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 하여 보부상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이 모인 조직을 상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덕산시장 운영에 큰 몫을 했던 예덕상무사가 내포 보부상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덕산면 시동리에 위치한 내포보부상촌에서는 옛 보부상들이 즐겨먹던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포 보부상촌이 생기고 벤치마킹을 위하여 회사에서 한번 가 본 후 저희 가족들과 사촌동생들을 데리고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보부상촌의 요금을 보면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충남에 사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신분증 지참은 필수겠죠?^^

보부상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고 전통위주의 체험시설만 있을 것 같지만 시대에 걸맞게 숲속 슬라이드, 4D영상관 및 VR체험 등 신세대 적인 놀이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실내 및 실외 모두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이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21시 금, 토, 일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2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대에 운영을 하니까 직장인들 또한 시간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보부상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보기위해 여러 가지 리뷰를 봤었는데요, 주로 보부상촌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에 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음식에 대한 주된 리뷰는 음식이 쉬거나 가격에 비해 맛이 없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 이었는데요. 보부상촌이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는 여름철 이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날씨가 더해지니 두부김치 같은 음식들이 많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가 한결 풀리고 나서 가서 그런지 음식이 쉬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맛은..전문 식당이 아닌지라 당연히 정말 맛있다. 라는 느낌은 못 받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격대는 어떠한 관광지를 가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다 비싼 게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에 대한 불만은 딱히 갖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의 보부상 촌이 더 매력 있게 느껴졌는데요, 야간에는 조명을 켜서 완전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될 뿐만 아니라 led장미도 예쁘게 설치해 놓아서 사진 찍기에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보부상촌을 함께 다녀와서의 후기를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보부상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하여 재미와 교육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D영상관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부상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보부상 유통문화의 변천사를 가상현실 속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한 점, 몸으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시설물 중간 중간 어른들 또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멀리 있어도 한번쯤은 찾아와서 즐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14

태안 청정 자연이
함께하는곳
국내 유일의 바다가 보이는
고남패총박물관



태안문화원
장수정

고남패총박물관은 2002년에 문을 연 역사유적 박물관으로 고남 패총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 및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패총이란 옛 사람들이 바닷가. 강가에서 조개를 채집하여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패총유적에는 옛 사람들이 쓰던 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이 나타나기에 중요한 유적이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한양대박물관(8회)과 한서대박물관(1회)을 통해 발굴을 진행하여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구, 유물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토기, 석기, 뼈연모, 조가비장지구 등 다양한 패총유물들을 옮겨와 고남패총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돌도끼, 돌화살촉, 삼각형돌칼, 흙자귀, 돌대패, 돌끌, 뼈바늘, 조개장지구, 굽은 옥 등 많은 유물이

주소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270-6
고남패총박물관
지번 : 고남리 1063-7 고남패총박물관
관람시간 : 09:00 ~ 17:00 동절기(11월~2월)
09:00 ~ 18:00 하절기(3월~10월)
※월요일 휴무(신정, 명절당일, 공휴일 다음날 휴관)
문의 : 041-670-2337



발굴 되었다. 1998년 1차 발굴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1989년 2차 발굴에서는 많은 유물과 함께 3기의 집터가 나왔다. 집터는 긴 네모형으로 길이가 3.4 ~ 4.7m, 너비가 2.4 ~ 3.1m 정도였다.

집터 바닥면에는 화덕시설로 보이는 타원형의 구덩이가 설치되었으며 일부에는 배수구로 보이는 구덩이가 파여 있기도 하였다. 또 5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고남리 패총유적 C지구에서는 신석기문화층과 청동기문화층이 별도의 패총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층위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져, 고남리에서 신석기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 하였다. 패총을 구성하고 있는 패각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굴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지락, 피뿔고둥, 대수리 등 이 섞여 있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생선뼈와 동물뼈가 발굴되어 선사시대의 사냥·어로 및 생업경제를 이해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 2박물관으로 옮겨가면 태안의 자연에 대해 이어지는데 자연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소금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보급된 천일염에 밀려 잊힌

우리의 전통소금이다. 50여 년 전 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던 장점은 천일염과 가격경쟁에 밀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

자연은 조상들의 삶이 담긴 우리나라 역사이다. 태안의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자연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소박하고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조상들의 대중적인 역사를 음미해 볼 수 있는 한국 전통소금 태안의 자연 이야기 이다.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 1497주기 추모제례 봉행



공주문화원 정지은

고대사회에서 제례는 축제의 큰 범위 안에 속했다. 국가의 규모나 왕권의 지배력에 따라 제례는 국가적 행사규모로 성대히 치러지기도 했으며 제례와 축제를 통해 국가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형성하며 그렇게 문화로 자리 잡아왔다.

우리 공주문화원은 웅진성에서 백제중흥을 이룬 무령왕 (재위 501~523) 서거 1497주기를 맞아 그 공덕을 높이 기리는 추모제례를 지난 6월 27일(토) (음력 5월 7일) 송덕전(무령왕릉)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25대 무령왕은 공주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백제부흥을 이끈 왕으로,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지석을 통해 주인공이 밝혀졌고, 음력 5월 7일 서거 주기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추모제례가 봉행된 것이다.

공주시 주최, 공주문화원과 공주향교(전교 최영규)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공주향교 유림에서 집전하며 초헌관의 김정섭 공주시장, 아헌관의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종헌관의 김영일 진수종합 건설회장이 헌관을 맡았으며 공주유림과 시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고증과 재현을 거친 홀기와 진설도, 제례무, 제례악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특히, 1971년 무령왕릉 발굴 당시 배수로 공사에 현장소장으로 참여했던 김영일 진수종합 건설회장이 헌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백제제례무는 영신무 (迎神舞), 오신무 (娛神舞), 송신무 (送神舞)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영신무는 신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왕의 혼령을 위한 송고한 의식이며, 오신무는 헌상의 춤으로 왕의 혼을 즐겁게 하고 백제의 부활을 축원하는 장으로 백제문화예술의 상징인 네 개의 악기를 가진 무희들이 기악무를 재현하여 왕실의 품격과 백제춤의 특성을 반영한 연향과 호선녀의 아름다운 춤이다. 송신무는 왕을 보내는 제의 춤으로, 신을 향한 충성을 담은 춤과 백제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왕의 마음을 춤으로 구현한 것이다.

백제 25대왕인 무령왕은 재위한 23년 동안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왕권강화와 대내·외적으로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회복, 주변국가와의 외교정책을 강화한 웅진백제의 상징성 있는 왕이기도 하다.



할미들의 ‘한땀 한땀 바느질 이야기’



온양문화원 이 지 윤

전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양 문화원에서는 아산시와 협의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각 방에 코로나 19 전파 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해 강사와 수강생들간에 비접촉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빠른 대처를 하여 다른 기관들로부터 벤치마킹 등의 문의가 쇄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방문객에게 입구에서부터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체크, 방명록 작성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시로 건물 전체 소독등을 실시하여 청정구역 유지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어르신같은 고위험군이 다중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수시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최대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강인원 10인 이내 제한, 분반 실시, 식사금지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각 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등 다방면으로 계도하며 수업에 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포기하여 특색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할미들의 ‘한땀 한땀 바느질

이야기’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한다. 어르신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1년차 신규사업으로서 할머니들이 사랑방에 모여 새색시 적 바느질 솜씨를 자랑하며 관계 형성을 하고, 알록달록한 천과 색실을 이용해 직접 소품을 만들며 어르신들의 무료한 생활 안에 행복한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꿰어지듯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자기만의 작품 제작과 꿈을 실현해나가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미미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만든 물품을 기부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아산시 시조로 유명한 ‘수리부엉이’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하여 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효과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늦게나마 7월에 개강, 코로나 확산으로 중간에 휴강 반복, 지금은 다시 1단계 완화조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 매주 금요일 오전, 오후 수업을 하여 일정을 맞추고자 매진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 경자년 쥐띠해를 맞아 쥐돌이 사각 티슈 케이스, 마스크 만들기, 핀쿠션 만들기, 에티켓 파우치 만들기, 두건, 아동 스카프 빔, 연잎 다포, 조각보, 애착인형, 주차 번호판 - 등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여 매 회차마다 어르신들의 열정을 담아 즐겁고 행복한 수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한 재유행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만큼 코로나

19 예방 행동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여야 하고 매 수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여 교실 환기와 비대면 수업을 꼭 준수하여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 19 전염이 걱정이기도 하신 어르신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할미들의 한땀 한땀 바느질 이야기’ 수업은 너무 재미있어서 휴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오늘도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생각하며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강경문화재 야행



논산문화원 이준창

문화재 야행은 다양한 문화재가 밀집된 문화도시에서 개최가 가능한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축제이다. 100년의 근대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는 논산시 강경을 일원에서 2020년 강경문화재 야행이 개최되었다. 문화재청이 후원한 이번 야행은 논산시 공모사업으로 논산문화원이 주관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10월 30일(금)~11월 1일(일)까지 3일 동안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온택트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도 11월 8일(일)까지 10일 동안 열렸다. 사전 녹화된 다양한 온택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집콕 야행'은 강경문화재야행을 둘러 보는

코너 이다. '아름다운 강경이야기'는 나태주 시인과 김홍신 작가가 각각 출연한 토크 콘서트이다. 강경을 추억하는 이야기와 작품 세계를 재미있게 풀어놓아 많은 조회 수를 남겼다. 또한 '해설로 만나는 강경문화재 기행'은 강경역사문화연구원 도슨트가 죽림서원, 임리정 등 강경의 주요 문화재를 소개했다. '강경의 맛을 찾아서'는 강경의 유명한 음식인 우어회와 복탕을 소개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 강경 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참여해서 음식 이야기를 하며 퀴즈도 풀고 이행시를 짓기도 했다. '연극 공연, 의인 엄창섭과 옥녀봉 3.10 만세운동'은 강경의 독립운동 역사와 인물을

소개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 '시를 통해서 만나는 강경'은 박용래, 나태주, 박범신, 권선옥 시인의 작품을 시낭송가가 낭송하고 이정우 충남문인협회장과 정순진 전 대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해설을 담아 방송되었다. 특히 강경 포구와 옥녀봉 등 아름다운 풍경이 시와 음악과 어우러져 품격 높은 영상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랜선 관람객들은 재즈,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오프라인 행사는 논산시에서 복원한 근대문화거리와 등록문화재 주변, 옥녀봉 일원에서 운영되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금·토·일요일을 이용해 6일 동안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다섯 타임으로 나눠서 30명씩 150명을 받았다. 현장에 와서 등록문화재를 둘러보고 스탬프로 인증하면 다양한 소품이 담긴 선물 키드가 주어졌다. 근대 의복·소품을 활용한 추억의 사진관에서 흑백 사진 촬영 혜택도 제공되었다. 사전 예약 없이 찾은 관광객은 스탬프 투어 후 기념할 만한 선물을 받았다. 『내 마음속 강경』을 제작하여 증정했다. 『내 마음속 강경』은 강경과 인연이 깊은 박용래, 나태주, 박범신, 권선옥, 유한근의 시와 소설을 발췌한 글에 강경의 문화재 사진을 수록한 문집이다. 사전 예약 없이 찾았지만 뜻밖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쁘게 돌아갔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혀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았다. 옥녀봉부터 근대역사문화거리 약 2km 구간을 청사초롱과 경관조명으로 행사 기간 불을 밝혔다.

등록문화재를 비추는 핀 조명으로 인해 건물이 더 웅장해 보였다. 화려했던 강경의 역사를 다시 보는 듯했다. 근대역사문화거리와 강경

구락부에서 강경의 100년 역사가 담긴 옛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했다. 한지, 조각, 단청 등 명인전도 전시 되었다. 주요 행사장인 근대문화거리는 옛집들을 밝히는 조명과 달 모양 등 예쁜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인력거와 옛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모습으로 과거로의 여행을 선사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휴대폰으로 추억을 하나 더 담아내기 바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배치해 행사장 내 수시 방역과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 온택트 행사가 아직은 생소하여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오프라인 행사 역시 먹거리가 없어 이 또한 아쉬웠다. 어려운 시기에 온택트라는 새로운 행사로 그래도 소통하고 즐겼다. 제한적인 오프라인 행사였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안전하고 건강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한 행사다. 내년 강경문화재 야행은 먹거리가 풍성하고 북적북적한 강경 근대문화의 거리를 상상해 본다. 또한, 문화재의 의미를 간직하며 즐거움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해 본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 제421주기 구봉 송익필 선생 제향(고유)



당진문화원 강대원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이자 당대 8문장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구봉 송익필 선생의 제421주기 제향 행사가 지난 10월 28일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입한재에서 당진문화원과 당진향교의 공동 주관으로 거행됐다.

구봉 송익필 선생(1534~1599년)은 문지 불우와 사화에 연루되어 비록 벼슬길에 나가지는 못하였으나 성리학과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대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구봉 선생은 우계 성혼(1535~1598년), 율곡 이이(1536~1584년)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교류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세 분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놓은 '삼현수간'을 보면 학문적으로나 당시 세태적으로나 구봉 선생과 많은 것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봉 선생은 몇 차례 입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고사하고 학문에 몰두하였고 말년기인 63세경 현재의 묘소가 있는 인근 마양촌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후학양성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구봉 선생이 태어난 곳은 당진이 아니지만 지역에 뜻 있는 인사들은 선생의 높은 학덕을 선양하고자 2010년 '문경공구봉송익필 선생선양사업회'를 조직했고 이후 제향 등의

선양사업과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2015년부터는 선양사업회와 당진향교, 당진문화원이 공동 주관하여 제향을 올리기 시작했고, 문화원에서는 시와 문장에도 탁월했던 선생의 학덕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2016년부터 제향 행사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서·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제향은 코로나19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참여자를 30명 이내로 제한하였고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수되었다. 제향 역시 3명의 헌관이 참여하는 대신에 고유제 형식으로 1명의 헌관이 선생께 제를 올렸다. 식전공연으로 '진혼무'를 올리고 제향 후 기념식을 통해 선생의 시를 낭독했던 작년과 비교해 이번에는 너무 약소하게 행사가 치뤄 졌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조 대학자 구봉 송익필 선생을 선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다같이 염원했다.

구봉 묘소 및 입한재
주소 : 충남 당진시 구봉로 137-42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ON 슬기로운 문화생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2020년 금산문화원 온라인 문화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관중음악회 진행

금산문화원 김 소 연

코로나 19로 인하여 문화원내의 시설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문화원 회원들의 동아리모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화원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응원하기 위하여 무관중음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무관중음악회 영상을 유튜브, 지역카페 등에 올려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즐기도록 하였다. 사전에 군, 청풍사 관리자 등 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금산문화원의 산하단체인 국악관현악단이 금산군 부리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풍사에 모여 국악연주를 진행하였으며 국악연주에 걸맞은 무용수도 섭외하여 영상에 담았다.

영상 속에 지역민의 애향심을 돋우기 위하여 문화적 · 역사적으로 중요한 청풍사에 대한 소개를 같이 담았다. 또한 지역 내의 행사업체를 섭외하여 조명 등을 설치하여 영상의 질을 높여 보다 알찬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적 일거리를 증대시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유튜브 내 금산문화원의 '청풍사(청풍서원)이야기'는 조회 수가 1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치대첩기념제의 온라인 전환

이치대첩은 권율 장군과 휘하 관군 및 의병이 연합하여 호남으로 향하는 왜적 2만 명을 통쾌하게 무찌른 임진왜란 육지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한 충장공 도원수 권율 장군과 휘하 관군 및 의병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이치대첩지를 역사적 전적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치대첩을 통해 조선군은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국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꾸는 데 성공해 국난을 극복한 원동력이 되어 현재 그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 받고 있다. 그러한 이치대첩을 기리기 위해 금산군에서는 금산문화원과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치대첩을 역사적 전적지로 계승 · 발전시키고자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래서 금산문화원은 금산군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인원들을 선정하여 제향을 진행하였다. 금산군수, 금산군의회의장, 금산문화원장이 이치대첩에 대한 소개와 사회 각기 각층의 인원들의 헌화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포하였다. 유튜브 내에 금산문화원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하고 지역카페와 회원들에게 유선연락을 취하여 홍보하였다. 그 결과 이치대첩기념제 영상은 현재 250회 이상의 조회 수가 기록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회원들과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영상을 유튜브, 지역카페 등에 올려 온라인으로 영상을 즐기도록 하였다. 사전에 군, 인삼축제재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금산문화원의 문화동아리인 기타, 춤바, 합창, 독창, 뮤지컬 등 15개 이상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속에 지역민의 애향심을 돋우기 위하여 금산의 자연환경에 대한 소개와 문화적 ·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소개를 같이 담았다. 또한 지역 내의 행사업체를 섭외하여 조명 등을 설치하여 영상의 질을 높여 보다 알찬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적 일거리를 증대시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금산문화원의 '인삼축제 관련 영상'의 조회 수는 약 3,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영상제작



금산인삼축제
주라 주라

기벌포문화제



서천문화원 김 정 환

인류의 오랜 역사속 흑사병, 페스트, 결핵 등등 팬데믹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죽음이 발생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모든게 멈춰버린 사회,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문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분명 문화예술은 생겨나고 발전되고 있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 이를 피해 시골로 피난간 10명의 남녀가 하루에 각자 한가지씩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100개의 이야기가 묶여 세계적인 명작 '데카메론'이 탄생했고 흑사병 이후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인간 위주의 인문주의가 싹트며 르네상스가 꽃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코로나도 우리 문화예술계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주었다.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문화원의 모든 사업들과 행사들의 계획이 그동안 해오던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행되거나 변경되었다. 그중 우리 서천문화원에서 지난 18회까지 해오던 기벌포 문화제도 그동안의 동호회인들 그리고 문화원 회원들이 직접 공연을 하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던 모습이었던 이번 19회 기벌포문화제는 문화원 회원들과 서천군민들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기벌포에 대해 알고, 각종 공연

및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제작된 영상은 기벌포의 역사를 알아보고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한 나태주 시인의 토크콘서트, 관악기밴드 '맨인브라스'의 연주, '테너 김성진'의 웅장한 무대, '추언주 시낭송가'의 신석초 시인의 '바라춤' 시낭송, 전통 예술단 '훈'의 아름다운 전통예술, 그리고 서림국악원의 들풍장 무대등의 다양한 공연 영상과 충남 무형문화재 침선장 이순동 선생님과 전수자 황길남 선생님의 작품과 부채장 이광구 선생님의 작품, 모시쌈솔 명인 주경자 선생님의 작품, 한국미술협회 서천지부장 임동범 선생님의 기벌포 해전도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벌포의 삶이 스며든 서천문화展" 및 인터뷰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민족은 자가격리에 최적화된 민족' 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백일을 쑥과 마늘로 버티며 동굴속에서 살아서 지금 우리 민족이 탄생되었다고 말이다. 우리 민족은 동굴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인간이 되기도 한 민족이기에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절망과 우울함속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 선두주자로 우리 서천문화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사회적 거리를 유지 하면서도 문화원의 존재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혁신으로 우울감 떨치다!!!



홍성문화원 김숙희

평화롭고 행복했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19.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홍성문화원은 공연장 시설이 있어서 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진행하던 모든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얼마 지나면 잠잠해 지겠지~ 하는 마음에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휴강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달 두 달을 지나 석 달이 되니 문화원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일상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직원들은 출근하면 “언제 다시 재개강을 시작하느냐,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코로나가 19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모든 수업을 재 개강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좋아하는 반면, 아직도 코로나가 19가 무서워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로 반반으로 나뉘었다. 문화원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과 만나니 숨통이 트여서 날아갈 것 만 같다”고 그동안 쌓였던 우울감은 다 사라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던 모양인지 모이는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짜잔~~ 그것은 바로 마스크의 혁신!!! 손으로 하는 악기는 마스크를 하면 되지만 입으로 하는 악기는 마스크 하기가 난감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 마스크의 혁신이었다. 악기의 마우스피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크 가운데를 뚫어 악기를 집어넣었다. 처음엔 모양이 너무 우스워서 악기를 연주 할 수 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코로나 대응법 혁신 마스크가 됐다.

지금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우울했던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아 활력이 뿜뿜~ 넘치는 그런 문화생활이 시작됐다. 우울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그것이 바로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어르신들, 우리도 아이돌이고 싶지만 아이돌은 아니고 실버돌~이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합주 연습을 했다.

무관중 영상촬영으로 유튜브도 만들어 제공하고, 중년의 로망인 색소폰 연주, 색소폰 동아리가 모여 달빛색소폰 합주단을 결성하지 6년이 된 지금 언제나 청춘이고, 아이돌이 아닌 언제나 실버돌 인 어르신들의 합주 연습은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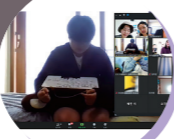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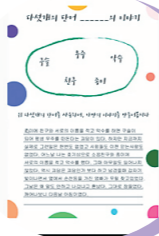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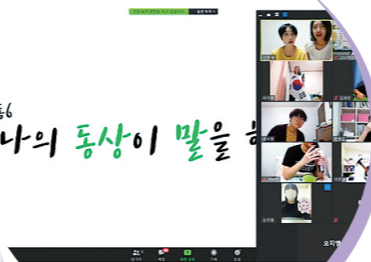
그동안 달빛색소폰 합주단은 어르신문화에 참여도하고, 소외지역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합주 실력을 뽐내며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요즘 마스크를 쓰고라도 연습에 열중하는 달빛색소폰 합주단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활동6
나의 동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다같이 만들어봅시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의료



예산문화원 **윤 선 정**

문화예술교육사로서 8월 7일부터 청소년 대상인 10차시의 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후 운영하였지만 8월 27일 '코로나19'감염병 경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기관이 휴관에 돌입하자 진행 중이던 대면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는 오명을 남길 수도 없었다.

문화예술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보다

현장성적 특성이 강한 교육이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현상으로 해당 분야가 위축되어 위기 상황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대 사회에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어느 때에 발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시류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현장성을 고려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즉 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지에 관해 물음을 던졌다. 생각의 끝에 창의력과 협동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험이라는 답이 나왔고, 그렇다면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종료할 수 없음에 확신이 생겼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대면이 불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까? 다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방법으로써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만 했다. "Sin prisa pero Sin pausa."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 명언이다.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나길 재촉하며 서두르기보다 프로그램 중단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면과 비대면, 단어 자체로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면 활동 진행 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 외에는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현장성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을 때, 같은 공간에 모일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참여자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기관 사정을 고려한 비대면 활동 방식으로 첫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의 방식과 둘째, 영상 콘텐츠 제작 총 두 가지의 방식이 떠올랐다. 두 번째 선택지는 쌍방향적 소통이 불가하고 수동적인 참여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ZOOM 수업은 참여자들 간 서로의 상호활동 보다는 참여자들 각각 스스로의 생각을 깨울 수 있도록 창의적인 주제를 던져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어린왕자 이야기를 차용하여 꼬끼리를 삼킨 보아뱀 또는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 등의 상황을 제시하며 기존의 책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예술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전혀 다른, 어쩌면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내놓았고 프로그램 이름인 '내가 보고 듣는 세상, 그 너머의 이야기'에 걸맞은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전개였다. 참여자들이 수업 내용에 익숙해질 때 즈음 정적인 두뇌 활동뿐만 아니라 동적인 신체 활동을 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특정한 키워드를 제시해주면 참여자들이 각자의 캠 화면에 꼭 차도록 본인의 신체 모든 부분을 이용하여 그 키워드를 표현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코로나 시국 이전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모두가 모여있는 공간에서 주목받으며 표현해야 하는 상황의 압박감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있던 반면, 각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 때의 참여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신체 표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면 프로그램이 현장성을 담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편견을 깨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위기 상황 극복과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전은 서로가 맞물려 돌아갔다.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짜인 틀을 벗어난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반대적 특성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도 '정답은 없다'가 모토인 문화예술교육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작은 불씨가 되어주었다.

새로운 표준, 뉴노멀 트렌드는 '언택트(Untact-비대면)'



태안문화원 김유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의 세계를 의미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현상과 함께 전 세계를 감염병 공황 상태와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바이러스 유행이 끝나고 나서도 언택트(Untact-비대면) 생활은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많은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태안군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제14회 태안군어린이 동요대회' 또한 깊은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한 무대를 기대하고 꿈꿔왔던 희망을 지나치기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랜선 경연을 통한 대회진행으로 코로나 19로 지쳐있던 태안군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부모님들과 함께 준비한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해 보았다.

내포지역 최초의 동요제를 자부하는 '태안군 어린이동요대회'는 경연과 공연이 함께 하는 동요축제로서 14년의 전통성과 한국서부발전(주)&태안문화원이 상생하며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자긍심 향상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비대면 랜선 경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제출한 동영상파일 심사를 통과한 15팀이 11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경연자 1인당 30분 단위 녹화를 한 후, 19일(목).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심사위원 3인이 녹화영상을 보며 본선 심사를 하게 된다. 공정한 심사는 온가족이 시청할 수 있도록 늦은 저녁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 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우리의 삶은 '언택트'로 변화한다.





임성빈
보령문화원

키조개 두루치기 하나쌈밥 식당

• [TV 생생정보 1154회] •

밥식(食)과 입구(口)자로 이루어진 식구(食口)라는 단어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가까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를 위해 코로나 식탁 매너를 꼭 지켜야한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충청수영로)에 있는 키조개 두루치기로 명성이 자자한 [하나쌈밥 식당]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식당은 신선한 키조개와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간 두루치기가 대표메뉴이며, 강게미회무침, 키조개샤브샤브, 키조개+삼겹살과 쌈밥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만남과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매너(덜어먹기 실천)를 잘 지키면서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을 함께하는 것은 소시민의 참 행복이 아닐 런지요?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키조개 효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놀라운 효능에 맛까지 일품인 키조개는 100g당 57칼로리로 지방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 저하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칼슘, 인, 철 등이 다량 함유돼 뼈의 건강과 빈혈 등에 도움이 된다. 키조개 속에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심혈관을 보호하고, 정혈 해독작용과 대사를 촉진해 지방분해 효과가 있으며, 간을 보호하고

기능을 활발하게 해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키조개 건강에 좋네, 효능이 다양하네, 키조개 사러 가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천의 볼거리는 충청수영, 영보정, 도미사당, 선림사, 갈매못성지 등 문화재는 물론이고, 오천항 배낚시는 전국의 조사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곳이다.



KBS 2TV 생생정보-대동 맛 지도



키조개 두루치기



강게미회무침



차림표



강게미회무침



키조개샤브샤브

맛집: 하나쌈밥 영업: 오전 10~21시 전화: 041-933-9333 / 010-5518-9333

생생정보(243회) 생방송투데이(1614회) 생방송오늘저녁(335회) 굿모닝대한민국(561회) 생생정보(437회) 6시내고향(4972회) 생생정보(1154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도종환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함께 잠은 손으로 따스하게 번져오는
온기를 주고받으며
겉옷을 벗어 그대에게 가는 찬바람 막아
주고
얼어붙은 내 볼을 그대의 볼로 감싸며
겨울을 이겨내는
그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겨울 숲 같은 우리 삶의 벌판에
언제나 새순으로 돋는 그대
이 세상 모든 길이
겨울 강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그 밑을 흐르는 물소리 되어
내게 오곤 하던 그대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말할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조그맣게 속삭여오는 그대
그대와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너무 큰 것은 아니고
그저 소박한 나날의 삶을 함께하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의 사이사이에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비록 고통일 지라도
그래서 다시 보람임을 믿을 수 있는
맑은 웃음소리로 여러 밤의
눈물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그대여 희망이며
그대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 내마음의 시(애송시) | 신광식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되돌려본 옛 추억의 여러 모습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뿐이 아니라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고, 아울러 주위를 감쌀 수 있는 그리함의 여유, 아직 제게는 그런 여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다보며, 세상사 여유로움 없이 거칠게 살아감을 잠시 내려놓는 일, 특히 감성을 드러 내는 시 한 편의 낭송은 진정 더 없는 귀함으로

다가섭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채 속도만을 즐기는 우리에게 詩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시는 간결해도 의미는 넘칠 수 있고, 소리는 작아도 파장은 강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종환 님의 시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읊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두렵니다.

[어부의 아내]

장미숙

바닷가
그 여자

아침 햇살에
파아란 바다를
치마 가득
퍼 나르던 여자

순이였던가

한낮에도
파아란 바다를
마당 가득
퍼 나르던 여자

눈조차 부신 파아란 바다에
젊은 남정네 하나 빼앗기고도

날마다
밤마다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며
파도보다
더 서럽게 자맥질하며
바다를 퍼 나르던 여자

지금도
그 여자
기도하고 있을까

| 내마음의 시(창작시) | 장미숙 온양문화원

바닷가 사람들의 일터는 바다이다.
이른 아침 남정네는 만선의 꿈을 안고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간다. 아낙은 해녀로서 바다와 집을
오가며 빈자리를 채운다. 아낙은 일구월심 바다로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빈다.
그러나 모진 풍랑의 바다는 남편의 소식을 나 몰라라 한다.
남편이 물귀신이 된 바다가 원수처럼 밉기도 하련만

그 터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닷가 여인의 숙명 같던 시절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대를 이어 바다로 나간다.
남편 생각에 아들을 말려야 하건만 이 또한 숙명처럼 받아들인 여인은 다시금 자맥질을 하며 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치성을 올린다.
바닷가 여인의 삶이 대를 이어 이렇지 않았을까!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2020년 생활문화활성화사업
유튜브 방송 촬영 중

열정의 실버뮤지션 '상록수밴드'

안녕하세요~!

우리는 열정의 실버음악밴드! 천안시동남구 문화원 동아리 '상록수밴드'입니다~!

(채희철-드럼, 김윤식-색소폰, 박재열-색소폰, 양인섭-일렉, 유동수-색소폰, 오종금-베이스, 강규남-보컬, 이규호-베이스, 송덕영-건반, 이성열-일렉, 최응묵-바이올린, 최낙만-트럼펫, 유복만-건반, 백강준-색소폰 이하 명단)

상록수밴드는 문화원에서 충남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감염증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충남생활문화축제 무대에 서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비대면 공연촬영으로 인해 아쉬운 마음을 많이 달래었다고 합니다.

왕년에 능수능란하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불렀던 프로연주가와 기본기부터 다져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연습과 연주를 병행 하는 초보자까지 다양한 실버세대들이 모인 밴드입니다.

이 분들이야 말로 역사의 산증인! 이십니다.

연령대는 60대부터 80대까지!! 연주와 노래에 대한 사랑은 20-30대 아니 10대의 젊은 세대도 넘어서는 열정과 정열로 밴드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문화원 동아리활동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대표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도 공연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밴드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천안지역의 여러 노인복지관에서 공연을 하고 봉사도 하십니다, 천안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인 동아리사업에도 참여하여 고령의 밴드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산의 자랑인 서산해미읍성(축제)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충남생활문화축제에는 천안시동남구문화원 동아리대표로서 무대에 올라 수많은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인 해미읍성에서 공연하는 감회는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클한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무대가 아닌 산성으로 둘러싸인 특정 유적지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이나 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 때문에 밴드일원은 현재 음악을 하고 있는 삶이 너무 즐겁고 성취 있으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당찬 각오도 한마디 남기셨는데요!

상록수밴드 일동
한마디

지역문화예술 저변 마련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음악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인
만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실버밴드! 상록수밴드!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 상록수밴드도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2019년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린
제2회 충남생활문화축제

예술의 사사로운 일상생활:문화

2019 충남생활문화축제



명진
온양문화원

꽃길에서 만나요

따사로운 햇볕 아래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계절이 벌써 돌아왔네요.

온양문화원에서는 사계절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일마다 각기 다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발걸음 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고 열도 직접 재어주며 손소독제와 방명록 작성 등등 청결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맛있는 냄새가 술~술 풍겨 나오는 요리 수업도 진행되고 알록달록 하얀 도화지 위를 수놓고 있는 아티스트 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장르 <천아트>입니다. 천아트는

주로 야생화를 그리는 작업으로 각종 소품이나 광목천에 야생화나 꽃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미술 분야입니다. 꽃 그림에 푹 빠져 있는 수강생들과 두 시간의 수업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초보자답지 않은 솜씨를 뽐내며 그림 삼매경에 빠진 수강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천아트수업 진행은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 지는데 천아트는 이번에 처음 하는 수업이라 아직은 입문반 수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문반 수업이라 하기에는 수강생들이 정말 잘 그리는 솜씨이기에 앞으로도 여러모로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천아트에 한번 빠지면 못나온다는 수강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보면 왜 그런지 알수가 있겠는데요. 천아트의 매력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 개만 꼽자면 첫째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하는 작품이 아닌 조금만 배우면 단시간 내에 정말 멋지고 예쁜 작품을 뽐낼 수 있는, 그러나 결코 작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생활소품인 커튼, 티슈케이스, 방석등등 이불까지 집안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실용미술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지인에게 나만의 예쁜 작품을 선물할 수 있고 또 작품을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은 주로 40대~50대 주부가 가장 많은데요. 육아와 살림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미활동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가족들이 배운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또, 하루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자랑을 하면 “어머~우리 엄마 맞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야, 장하다 우리엄마” 라고 응원도 해주고 또 남편은 “당신도 이런 면이 있었어? 안해봤어도 참 잘하네. 열심히 해봐” 라고 칭찬도 해준답니다.

이들 수강생 중에는 80%가 금 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캘리그라피 선생님은 캘리와 천아트를 접목하고 싶다고 배우고,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은 단골들에게 틈새 서비스로 주려고 배우고, 미싱으로 예쁜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강생은 본인이 만든 제품에 꽃그림을 그려 넣고 싶어서 배우러움과 동시에 같이 배우는 수강생들에게 반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할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에 배운다고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천아트 수업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즐거운 수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양문화원에서는 저렴한 수강료로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매일 진행되는 시간마다 주차장이 모자라 먼 곳에 주차하고 와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한해의 수강을 마무리를 짓는 연말에는 각 수강 종목별로 공연이나 전시회를 하는데 공연과 전시회를 위하여 더 특별히 열심히 수강하고 배우는 동기부여도 해주어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전시를 하는 천아트에서는 연말 전시를 위하여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시는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 홍일점으로 나서게 될 작품은 털신에 그림을 그려 넣은 꽃신입니다. 수강생들이 털신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찌나 즐거워들 하시는지 평소에 털신을 신는 것은 좀 어색한 일 이다 하여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쁜 털신을 멋 내기로 신고 다닐 수 있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렇듯 온양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아트 수업은 <꽃길에서 만나요> 라는 타이틀 아래 한계단 한계단 실력을 다져가는 수강생들이 모여 넓은 꽃밭을 이루고 언제나 꽃길만 걷기를 바래 봅니다.

12월이면 종강되는 모든 분야의 수강생들은 마지막 전시와 공연을 앞두고 아쉬워 합니다. 언제 수업이 재개 되는 봄이 오려나 아쉬워 하며 매시간 열심히 수강하는 수강생님들 였는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 이 슬
서천문화원

어서와, 모시공예는 처음이지?

2019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인 서천문화원 문화강좌 악기동아리 합주 '우리 함께 합시다'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인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수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고안하여 「어서와, 모시공예는 처음이지?」라는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예로부터 한산모시는 그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려왔고,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도 되어 있다. 모시공예는 서천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원단으로 사용하여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어 만든 서천만의 특별한 공예품이다.

서천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모시공예를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가 여러해동안 자리매김해 왔다. 서천군내에서는 서천문화원의 모시공예 강좌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을 착안으로 하여 모시공예 강좌를 서천문화원 뿐만 아니라 서천관내에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서천문화원 모시공예 강좌의 우수한 수강생을 선정하여 수강생을 지도해봄으로써 모시공예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먼저 모시공예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서천 관내에 있는 기관을 찾아본 결과 서천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산 삶기술학교라는 두 기관이 모시공예 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모시공예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여성들은 진행하는 강좌 내내 출석률도 월등히 높았고, 학습 의지도 높아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모시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삶기술학교란 서천군에서 한달살기라는 취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서천지역에서 한달살기를 하며 삶기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볼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중 모시공예 강좌를 신청한 청년들이 교육 대상이 되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서천의 한산모시와, 그것으로 만든 모시공예라는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시공예 강좌가 서천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서천의 모시공예가 세상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또한 모시공예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관건이다. 우아하고 고귀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모시공예의 가치는 무한하여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다.

그 가치를 많은 대중들이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들인 수고와 도움의 손길들이 더욱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박 상 준
청양문화원

전통차(茶)의 매력에 빠지다 청양문화원 다도반

일상 속에서 집에 손님이 찾아왔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흔히 건네는 인사가 “차 한 잔 하실래요?”일 것이다. 하지만 차보다는 요즘 많은 이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대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차는 저마다 고유한 색과 향과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좋은 차가 된다. 한 잔의 차로 차 향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자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청양문화원 ‘다도반’ 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도반은 11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로, 퇴근 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취미생활을 즐기 원하는 직장인이나 제대로 된 차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정화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성년례, 문화예술제 등 각종 문화원 행사 참여하여 전통 다도 시연, 차 시음 봉사를 통해 우리 차의 맛과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회원들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타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여 발효차 제다, 녹차, 꽃차 제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종이컵에 담긴 일회용 티백차나 커피믹스를 녹인 커피가 아닌 단아한 찻잔과 운치있는 꽃장식을 곁들인 차, 다도반 회원들의 정성까지 대접받는 방문객들은 그냥 참가자가 아닌 한사람 한 사람이 귀빈 대우를 받는 것 같아 한결 더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게 된다. 회원들은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다도가

아닌 실생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생활다도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해 우리나라의 차 문화와 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최정화 회장은 “다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다도반 동아리가 본인에게 가장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정말 한 식구나 다름없는 회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보면서 지식과 삶이 동행하며 무한한 성장력을 느끼게 하는 동아리 활동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된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마냥 미룰 수 없는 동아리 운영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함께 하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충환

예산문화원

[예산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

평균 연령 77세 충남 예산과 예산문화원을 대표하는 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을 소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예산문화원에서 아코디언 강좌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음악과 악기가 좋아서 함께 모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역에 사는 아코디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 여러 직위에서 활동하시다 퇴임하신 분들로 아코디언의 매력에 푹 빠져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코디언은 소리가 좋고 왼손과 오른손, 양손을 모두 활용하여 두뇌 발달과 정서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색을 구사할

수 있어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가능하며 삶의 활력소와 옛사람들의 정신까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아 건강 유지에도 좋은 악기입니다.

문화학교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자타공인 예산을 대표하는 실버밴드로 각 기관 행사 및 축제, 요양원과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희망의 연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아코팝스 예능단은 그동안 140여 회의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취미로 배우게 된 아코디언이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코팝스 예능단은 연주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 출전하여 충청남도 예선전에는 1등하여 라이즈 스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단원들은 아코디언을 배워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하양길에 접어들었지만 너무나 멋지게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들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음악으로 봉사하고 단원들의 화목하고 이런대서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100살 때까지도 함께 합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단순 동아리가 아니며 2019년 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예산문화원 아코팝스 예능단'으로 문화예술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코팝스 예능단의 유명세는 예산에서 충남, 충남에서 전국으로 떨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 KBS '다정다감'에 출연하였고 올해는 대전 SBS '생방송투데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코디언 선율에 사랑을 싣고 '화목, 건강, 봉사, 보람'을 슬로건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아코팝스 예능단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예산 아코팝스 예능단 사랑해주세요 !

1

202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제1차 임시총회



- 일자 : 2020. 1. 10(금)
- 장소 :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

2

202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제2차 임시총회



- 일자 : 2020. 2. 7(금)
- 장소 :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6호

3

202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 일자 : 2020. 2. 24(수)
- 장소 : 충청남도청 본관동 소회의실

4

2020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관계자 간담회



- 일자 : 2020. 4. 21(화)
- 장소 : 충청남도청 별관동 강의실
- 충청남도 시·군 문화원-충남문화재단 실무자 간 사업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구조 토대 마련

8

충남문화원 표준 보급 마련 TF 1, 2차 회의



- 일자 : 2020. 6. 18(목), 8. 3(월)
- 장소 : 홍성문화원 회의실
- 충청남도 문화원 사무직원 급여 표준(안) 수립

7

2020 군·현대 구술채록 사업 실무 교육



- 일자 : 2020. 5. 28(목)
- 장소 :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시·군별 사업 추진 계획 공유

6

2020 군·현대 구술채록 사업 추진 간담회



- 일자 : 2020. 5. 18(월)
- 장소 :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
- 2019년도 사업 추진 성과 발표 및 2020년도 사업 추진방향 논의

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월례회의



- 일자 : 2020. 4. 28(화)
- 장소 : 충청남도청 본관동 중회의실

9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 일자 : 2020. 6. 23(화)
- 장소 : 천안동남구문화원 회의실
- 2030 문화비전 및 충남문화원 현안 논의, 코로나19 극복기원 성금 전달

1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월례회의



- 일자 : 2020. 7. 24(금)
- 장소 : 홍성문화원 회의실

1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월례회의



- 일자 : 2020. 8. 21(금)
- 장소 : 서천문화원 회의실

12

온라인 충남지역오디션 2020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 일자 : 2020. 8. ~ 10.
- 장소 : 충청남도 일원
- 공연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충남 어르신 동아리 중 최고의 고수를 찾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

16

2020 충남문화원 문화리더 양성 워크숍



- 일자 : 2020. 12. 4(금)
- 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 직위에 따른 역할과 문화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및 타 문화 단체와의 차별성과 역할 재정립

15

충남문화원 원장간담회



- 일자 : 2020. 11. 11(수)
- 장소 : 예산문화원 회의실

14

제4회 충남생활문화축제



- 일자 : 2020. 10. 23(금)~25(일)
- 장소 : 당진문화예술의 전당 일원
- 충남 생활문화 동아리의 성과 발표 및 교류 장려

13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사회



- 일자 : 2020. 10. 23(금)
- 장소 : 당진문화원 회의실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등 지역문화 창달 공로

이종석 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이 영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루어졌다. 이종석 원장은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과 향유, 공감과 확산이라는 문화기반사업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 원장은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을 7년째 이끌어 오면서 지역문화 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원 만들기 주력, 향토적 긍지감을 세워가는 한편 유관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협업에도 관심을 두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 문화운동가이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종석원장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전국적인 주목, 보령문화원 <충청수영> 발간 향토논문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상 수상

보령문화원은 10월 23일 오전 11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충청수영> 발간 사업의 공적으로 전국 향토논문 공모 부문 특별상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상을 수상 하였다.

이 상은 전국 각지의 지방 문화원 연구실적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실적과 함께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 보령문화원과 보령시가 아주 크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쾌거가 아닐 수 없고, 학계와 향토문화관광에 관심있는 모든 이에게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시상한 <제3회 근현대 기록물전>에서는 우리 보령문화원 황의호 원장이 공모한 '黃穩家의 用簿와 家用簿'로 대상을 차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한상준 회원이 공모한 '포성장 외 9편'이 특별상을 차지하여 국가기록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년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 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에서 당당히 1위에 올라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예술 활동을 실현해주는 무대 제공과 오디션을 통한 사이니스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2일(화) 온양문화원 3층 강당에서 공연 촬영을 실시하였다. 충남도내 60세 이상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단체 18개팀이 참여한 이번 오디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 및 안전을 위해 개별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및 열체크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무 무리없이 경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충남도에서 본선에 진출한 '빠담 빠담' 장구난타팀(1위)과 행복나무 색소폰 앙상블(2위) 2팀이 10월 30일(금)에 본선 온라인 경연을 실시하여 '사이니 스타상'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온양문화원 '빠담 빠담 장구난타'팀은 인생의 열정적인 어르신팀으로서 일본 성향의 드럼통 난타, 대북 난타의 벽을 허물어 아름다운 우리 전통 악기인 장구로 신명나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2018아산시평생학습 발표회 장려상 수상, 2018~2019아산시생활문화한마당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수상과 지역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팀으로 비상하고 있다.

2020년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충남지역 오디션 온양문화원 '빠담 빠담 장구난타' 1위 본선 진출



제1회 서산문학상에 편세환 원장 영예

지난 11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서산지회(지회장 한용상)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지부장 전승진)가 주관한 「서산문인한마당축제」에서 편세환 서산문화원장이 제1회 서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산문학상은 개인의 문학작품 활동 뿐만 아니라, 문학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학을 통한 소통, 공감,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학의 지평을 여는데 기여한 자를 기리고자 제정한 상이다.

편세환 원장은 "서산의 문학정신을 이어온 선배 문인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의 상으로, 문학 뿐만 아니라 서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편세환 원장의 작품으로는 「밤에 뜨는 태양」, 「하얀눈물」, 「빛과 그들의 영상」 등 다수가 있다.

부여문화원(원장 정찬국)이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부문에서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3일(금)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금년 제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전국 230여 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열린 2차 PT심사에서 5명의 외부 심사위원 이 문화원의 지역문화발전 기여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협력, 문화원 경영성과 등을 심사하여 시상자가 결정되었다. 부여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향토문화 발굴연구 조사사업, 지역문화 행사 개최, 전시·공연, 명사답사, 문화 예술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문화동아리 활성화 등 지역의 문화발전 및 소외계층 문화보급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여의 나무 이야기』, 『부여의 누정이야기』, 『부여학 강좌 교재』 1, 2권 등 일련의 발간사업과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부여답사』와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여팝소케스트라』, 『김영학조각관』, 『부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정찬국 문화원장은 "부여문화원 관계자들이 고생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를 계승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부여문화원 대한민국문화원상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 홍성문화원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수상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지방문화원의 날'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문화원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원 간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방문화원의 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기념식에 문체부 장관이 지방문화원장과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지방문화원의 날 유공자 표창과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표창을 했다. 홍성문화원은 향토민속 발굴 및 홍성문화원 2회 발간, 지역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생활 문화동아리 발굴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를 잇는 홍성의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 전시회와 나무를 다듬어 예술작품을 완성 시키는 서각 동호인들의 서각 작품 전시회도 갖고 해마다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활력있는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중 40여개의 문화학교 강좌를 시행하여 남녀노소 모든 지역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직장인생활 스피치반을 운영해 스피치 자격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성문화원은 지난 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 한데 이어 올해는 종합경영분야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인 우수상을 받았다.

제17·18대 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일 예산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제17대 김시운 원장의 이임과 제18대 김종옥 원장의 취임식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선봉 예산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승구 예산군의회의장, 원성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김태웅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충청남도내 문화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12년간 문화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예산군 문화발전과 예산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제15~17대 김시운 이임원장에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선봉 예산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등의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고, 제18대 김종옥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예산문화원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8대 김종옥 신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예산군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크게 누리고,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획력 있는 공모사업으로 문화혜택 제공,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를 비롯한 축제행사 발전, 예산시네마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제공, 국내·외 문화관련 기관과 교류 활성화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문화원 제17·18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



정지수 사무국장, 제3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태안문화원 정지수 사무국장은 10월 23일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제3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향토문화 공모전은 1986년부터 개최되어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향토사가의 연구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향토문화 논문, 콘텐츠, 수기 부문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세 차례에 걸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통해 수상작이 결정된다. 향토문화 논문 부문에 공모한 정지수 사무국장은 '태안지역의 옛 자염 생산지와 염정'으로 태안 자염의 역사와 위기, 복원 등을 통해 태안 자염을 재조명했다. 특히 문헌에서만 등장하는 '염정'의 실체에 대해 연구하고, 지명과 지형의 분석을 통해서 '염정'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곳의 후보지를 조사하고 분석해 그 연구를 인정받았다.

태안문화원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자염을 복원하고 재현한 바 있다. 그 이후 자염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20 충남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9호	87. 02.		회장 유환동	사무처장 조남민	김상희 조민영	T.635-9102 F.635-9104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58.04.20	487	조성오	곽승일	이 술 임유라	T.564-1022 F.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05.10	275	이종석	신광식	문경희 민병주	T.581-2101 F.582-1725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반죽동)	54.12.16	2,160	최창석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T.852-9005 F.856-6746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56.03.02	739	황익호	임성빈	김명희	T.934-3061 F.936-3071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05.10	824.2	정종호	김형기	이지윤 박현미 박상규	T.545-2222 F.542-4444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57.06.15	1,884	편세환	김영철	최윤경, 이용배, 길현정 윤재경, 김윤옥, 박병철, 김예지	T.669-5050 F.669-4567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57.11.14	1,757	권선옥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55.09.10	341.8	유장식	강대원	백숙현 이아름 모선호 김아담	T.354-2367 357-2367 F.356-3850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7.11.18	1,203	장 호	전병만	석현숙 이 진 김소연	T.754-2724 F.754-661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54.03.01	3,269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이상연 김미완 김영란	T.835-3318 F.833-3318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5.01.26	4,272	이관우	박은희	정혜옥 김정환 김이슬	T.953-0123 F.953-0133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55.04.17	945	임호빈	복은주	차승원 박상준 김 진	T.943-4774 943-4775 F.944-1030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54.03.31	1,995	유환동	조남민	김숙희 이경진 모태희	T.632-3613 F.633-1199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10.15	2,530	김종옥	박세진	〈본원팀〉 이종환 장혜민 윤선정 김희진 〈극장시설팀〉 김동환 장화수 이다연 이수영 박지혜 김인정	T.335-2441 332-2441(별관) F.334-43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90.06.05	3,507	정낙추	정지수	김유미 안은선 장수정 안상은	T.674-2192 F.675-6968